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2. 23.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당사자의 목소리에 집중한 공약보도 돋보여 (2/18)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링

2022년 2월 18일(금) <KBS 뉴스 9>

대선보도는 총 4건, 동정 3건, 공약보도 1건이었다. 정책보도가 1건뿐이라 동정 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하루였다.

이처럼 별도의 이슈 없이 동정에 치중하는 날에는 동정보도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판에 박힌 스타일의 보도가 되풀이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후보의 동선을 따라 주요발언을 나열하는 정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때로는 청중의 관점에서, 유세지역 시민들의 말을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의 동정보도는 천편일률적이다.

다른 대선보도량이 줄어들면 동정보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KBS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각 후보 별로 한 꼭지씩 동정보도를 내보냈다.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청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대선보도량이 부족할 때마저 애써 李·尹 각 1꼭지, 沈+安=1꼭지란 공식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沈·安 후보 관련 동정보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보니 두 후보의 동정은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양적으로는 절반이지만, 질적으로는 그 이하가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적게 배치할수록 형평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李·尹 후보의 동정보도의 제목에는 두 후보 측이 부각하려는 메시지가 잘 담겨지는 반면 沈·安 후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대 전환’”(17일 제목)하고,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17일 제목)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어제도 “노동계 표심(을) 공략”(17일 제목)하고, 오늘도 “노동계 표심 잡기”(18일 제목)를 하는 식이다. 더 짧은 보도 제목과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더 길게 취재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관 공약을 짚어 본 [공약 돋보기]는 참 좋았다. 무엇보다 소방관 당사자의 입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와 관련된 공약들을 점검해나가는 접근방식이 돋보였다. 이렇게 공약이나 정책보도에서 당사자에게 더 많이 발언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공약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약 검증에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보도의 경우에도 소방관들이 얼마든지 직접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을 거다. 소방관이야말로 소방공약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책임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 하나만 지적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소개한 ‘소방심신수련원 건설’은 이미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강릉 지역에 건립이 착수됐다는 기사가 있다. 윤 후보측 보도자료를 보아도 “현재 추진 중인 소방심신수련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핀다”고 나와 있다. 윤 후보측 대표공약은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으로 증액하여 2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작은 실수로 보이지만 상당 분량으로 소개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간다.